

# 푸른 눈빛들은 반원형으로 달마를 에워쌌다



원로 언론인 이규행이 쓰는

## 달마 이야기



(32) 이리떼의 습격

달마는 초조하고 불안했다. 자세를 가다듬고 다시 입정에 돌려고 했다. 모든 것을 잊으려 애썼다. 온종일 꼼짝도 않은 채 앉아 있었다. 그러나 웬일인지 좀처럼 잠이 되지 않았다. 동굴에선 여전히 식은 땀이 흘러내렸다. 생각을 버리려고 하면서도 생각이 휘돌리는 꼴이었다.

어느덧 동굴 밖은 어둠이 깔리고 있었다. 달마는 '아미타불'을 큰 소리로 외치며 불꽃 자리를 털고 일어섰다. 허리를 바로 세우고 기지개를 폈다. 그리고 동굴 밖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동굴 아래 바위섬에 갈 생각이었다. 며칠 동안 굶은 창자를 풀고 나무뿌리로 채우고 샘물도 마시고 싶었다.

이미 태양은 서산을 넘어간 지 오래였다. 옅은 비단이 하늘부터 덮어 내려오듯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다. 달마는 샘물이 솟는 바위를 내려다보며 깊은숨을 몰아쉬었다. 동굴의 식은땀은 찬바람에 온몸을 오싹하게 했다. 그는 발걸음을 옮기면서도 좀처럼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았다. 그럴수록 그는 더욱 길게 숨을 가다듬었다.

### 물러서서 동굴로 가면

그러나 몇 걸음도 가지 않아서 이상한 감세를 느꼈다. 주변의 공기는 마치 비수처럼 그의 살갓을 후벼뚝했다. 달마는 퍼뜩 정신을 차렸다. 고개를 돌려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아나나 다름없게 불과 이십여 보쯤 떨어진 곳에서 한 쌍의 푸른 눈빛이 자신을 쏘아보고 있었다. 달마는 마음 속으로 깜짝 놀랐다. 신경을 곤두세워 푸른빛의 정체를 살폈다. 그것은 이리의 눈빛이었다. 늑은 이리 한 마리가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것이었다.

달마는 어릴 때부터 산행을 노닐었기 때문에 이리의 교활함과 탐욕스러움, 그리고 잔인함과 난폭함을 잘 알고 있었다. 이쪽을 노리고 있는 품으로 보아 늑은 이리를 다루는 일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았다. 달마는 걸음을 멈추고 잠시 망설였다. 앞으로 계속 걸어 나갈 것인가 아니면 뒤로 물러날 것인가를 당장 결정해야 할 판이었다.

만약 뒤로 물러서서 동굴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 늑은 이리는 앞잡아 보고 동굴로 달마를 끌어들일 것이다. 그렇다고 이대로 서 있을 수만도 없는 일이었다. 그렇게

해서 이리와의 대치 국면을 만들었다간 더욱 큰 위협에 빠질 공산이 컸기 때문이다. 일단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선 앞으로 나아가는 수밖에 없었다. 대담하게 겁 없는 기세로 이리를 제압하는 것이 유일한 선택인 듯싶었다.

"고안 놈." 달마는 큰 소리로 호통을 쳤다. 옷깃에 바람을 일으키며 당당하게 늑은 이리 앞으로 다가갔다. 이리는 꼬리를 감추며 한쪽으로 비켜 서면서 뺨히 달마를 쳐다보았다. 달마는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이리를 지나쳤다.

그러나 이리가 비켜 섰다고 해서 포기하고 물러선 것이 아니었다. 달마도 그것을 모르지 않았다. 만약 이때 고개를 돌리더라도 한다면 그것은 이리의 공격을 스스로 재촉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달마는 고개를 똑바로 쳐들고 그대로 앞을 향해 걸어 나갔다. 채 몇 발자국도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갑자기 목 뒤에 뜨거운 기운이 느껴졌다. 이리가 날카로운 두 발로 달마의 양어깨를 막 공격하려는 듯 침착하게 대처했다. 엄금색 하나 변화지 않은 채 두 손으로 이리의 두 다리를 꼭 잡았다. 이리를 머리 위로 들어 그대로 땅바닥에 내동댕이쳤다. 늑은 이리는 바위 밑으로 '쿵' 소리를 내며 고꾸라졌다. 사지에 경련을 일으키더니 그대로 뿔이 버렸다.

달마는 늑은 이리가 죽었다고 여겼다. 얼른 합장을 했다. "업보보다, 업보, 아미타불." 달마는 입으로 '아미타불'을 연호했다. 그러나 늑은 이리는 죽은 것이 아니었다. 몸을 한 바퀴 굴리는가 싶더니 어느 틈에 바위 위에 기어올라 강렬한 눈빛을 내뿜으며 쫓아왔다.

"우-우-." 달마는 깜짝 놀랐다. 이리의 울음소리는 자기 무리에게 구원을 청하는 소리였다. 이때 서둘러 피하지 않으면 이리떼에게 포위 당할 게 뻔했다. 달마는 무의식적으로 동굴 쪽을 바라보았다. 피할 곳이라고 그 곳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 곳이라고 해서 위험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설령 동굴 속으로 피한다고 하더라도 이리떼가 물러들면 막아낼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우-우-." 달마가 머뭇거리기 틈도 없이 산언덕이

곳 저곳에서 반씩 반씩 푸른 불빛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푸른 눈빛들은 순식간에 반원형을 이루면서 달마를 에워싸고 조여들었다. 달마는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몸을 날려 동굴 속으로 뛰어 들어갔다. 이리떼들은 맹렬한 기세로 쫓아왔다.

### 무리에게 구원 청하고

달마는 동굴 안에서 반격의 자세를 취했다. 이리들이 달마를 쫓아오면 은 무슬로 막아낼 작정이었다. 이리떼들의 응원에 힘을 얻은 늑은 이리가 맨 먼저 뛰어 들어왔다. 그런데 동굴 바로 앞에서 이리는 그대로 고꾸라졌다. 달마는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다. 늑은 이리를 뒤쫓던

## 손에 작은 돌을 쥐 채 달마를 향해 환하게 웃는 소년 티가 남아있는 승려

이리들도 동굴에 접근하자마자 땅 위에 나뭇잎을 마한가지였다. 달마는 기이하게 생각하면서 신경을 곤두세웠다. 이리가 동굴 앞으로 다가오는 순간 '훅~' 하고 바람 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와 동시에 이리는 그대로 나가떨어지는 것이었다.

이리떼들은 더 이상 동굴로 접근하려고 하지 않았다. 어느 틈에 불꽃이 숲 속으로 흩날리며 도망치기 시작했다. 동굴 밖은 갑자기 적막에 빠졌다. 달마는 고개를 가웃거리면서 동굴을 나와 사방을 살피보았다. 동굴 옆에 우뚝 솟은 나무의 윗가지가 흔들리는가 싶더니 승려 한 사람이 사뭇히 뛰어내렸다.

얼추 보아 채 스무 살도 되지 않은 것 같았다. 손에 작은 돌을 쥐 채 달마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달마는 소년 티가 채 가시지 않은 승려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어디선가 본 듯했다. 그는 소림사의 문승(門僧)인 지인(智仁)이었다.

달마가 소림사에 오면 날, 주지 혜공에



◀양산 통도사 응진전 천장벽화(벽에 채색, 조선 숙종 때인 1670년 응진전 건조시 그려진 것으로 추정).

게 안내한 사람이 바로 지인이었다. 달마가 비록 불성사나온 불골을 하고 있었지만 지인은 범상치 않은 기풍을 첫 대면 때부터 느꼈다. 한데 혜공과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뜻밖에도 달마는 사원에서 쫓

심 많은 젊은이였다. 달마가 산문을 나서자 몰래 뒤를 밟았다. 천축의 노승이 어디로 가며 무엇을 할 것인지 지켜볼 심산이었다.

그는 달마를 미행하면서 화동굴에서 일어난 일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화동이 굴을 떠나는 일대장관엔 다만 경이로울 뿐이었다. 한데 굴 속에 들어간 달마는 몇 날을 지켜보아도 굴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지인은 달마의 정진하는 모습에 절로 머리가 숙여졌다. 호기심과 동정심은 어느덧 존경심으로 바뀌었다.

이 날도 지인은 저녁 무렵 화동굴을 찾아들었다. 탁발한 밥을 싸 들고 왔다. 달마에게 드리고 그를 스승으로 삼아 대승선법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했다. 동굴 입구에 다다른 순간 그는 달마가 이리와 대치중인 것을 목격했다. 곧 이어 이리와 격투가 벌어지고 이리떼에게 포위 당하자 달마는 굴 속으로 피신했다.

지인은 마음이 급했다. 탁발을 내려놓고 갓싸게 작은 물멍이들을 주워 모아 나무 위로 올라갔다. 그는 동굴 앞으로 달려드는 이리에게 차례로 돌판매질을 했다. 백발백중이었다. 이리는 예외 없이 깎소리도 못하고 죽었다.

달마는 뜻밖의 응원자로 말미암아 위기에 벗어났다. 그러나 달마는 아무래도 상상이 가지 않았다. 어떻게 해서 소림사의 문승이 이 곳에 왔으며 무슨 신기(神技)로 이리떼를 죽였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었다. 우선 달마는 합장하며 예의부터 갖추었다.

"구해 주어서 정말 감사하오, 아미타불."

지인은 너무나 황공해서 턱덜 땅 위에 꿇어앉아 연신 머리가 땅에 닿도록 절을 했다.

"조사께서 이렇게 지나친 예로 대배 주

시니 소승은 황송하여 몸뚱 바를 보르겠습니다."

달마는 곧바로 지인을 부축해 일으켰다.

"일어나시오, 어서 일어나시오."

지인은 몸을 일으키자 서둘러 숲 속으로 달려갔다. 감춰 두었던 탁발한 밥을 찾아내어 달마에게 두 손으로 바쳤다.

"이것은 스승이 탁발한 밥입니다. 스승의 작은 정성을 받아 주십시오."

### 탁발한 밥 찾아내어

달마는 탁발을 받아 들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그의 머릿속에선 광주 법성사의 광지, 금릉사의 통미, 낙양 영명사의 자광 그리고 눈앞의 소림사 문승 지인이 겹겹이 아른거렸다. 천하의 승려들 가운데는 공부가 깊고 자비로운 이들이 많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비록 소림사의 행자승이긴 하지만 지인의 몸에서 달마는 대승선법의 진면모를 읽을 수 있었다. 다시 소림사로 돌아갈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솟아났다. 달마는 안도의 숨을 내쉬면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소사부와 같은 이런 자비로운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오, 오히려 노닐이 부끄럽소."

지인은 달마의 참마음을 알 것 같았다. 활짝 웃으며 대답했다.

"조사께서 전심전력으로 면벽 좌선하시는 모습은 저희 불문의 귀감이 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스승이 존경하고 우리러보는 것을 어찌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변변치 못하지만 저의 성의오니 이 밥을 받으십시오. 스승은 동굴 밖에 있는 죽은 이리들을 저 아래 깊은 골짜기에 치우고 오겠습니다. 그 동안 천천히 드십시오."

**불교 TV가 정성들여 준비한 삼베명품전**

孝道佛事

극락왕생복 특별할인기 (남·여) 각 1,120,000원  
소님들의 수의도 짓고 있습니다.

삼베양말 특별할인기 (남·여) 각 1set(6족) 20,000원

삼베목수건 특별할인기 1개 10,000원 / 크기 24cm(너비)×262cm(길이)

삼베목수건은 식물성섬유와 동물성섬유의 장점을 살려 제작해 삼베복유의 사각사각한 느낌이크래로 살아 있습니다

주문전화(불교TV사업부) 02-3270-3366~7

불교텔레비전주식회사  
서울마포구 마포동 418 금호전기빌딩  
대표전화: 02-3270-3300 팩스: 02-3270-3498

• 불교TV 후원회 전화 : ARS(02)700-1032(한 통화에 2,000원의 후원보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 불교TV 시청 방법 : 전국 각 지역의 종합유선방송(SO)에 연락하여 신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